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12. 30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佛 파리 총격 용의자, '병적 외국인 혐오' 자백

- 12.25 프랑스 검찰은 지난 23일 파리 소재 쿠르드 문화센터 총격 사건 (사망 3, 부상 3) 용의자가 과거 집에 도둑이 든 사건 이후 '병적인 외국인 혐오'가 생겼으며, 평소 우울증 등을 앓았다고 발표

* 한편 수백명의 쿠르드족이 파리 레퓔블리크 광장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,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발생

미 주

○ 美, LA 총격사건 감소 불구 한인타운 관련 범죄 증가

- 12.23 LA경찰국(LAPD)은 올해 LA 한인타운에서 81건의 총격사건이 보고됐으며, 이는 지난해 62건보다 30.6% 증가한 수치로 이에 따른 총격 피해자도 32명으로 지난해 24명보다 33.3% 증가했다고 발표

* 반면, LA 전체적으로는 올해 동기간 2,953건으로 지난해 同期 3,194건과 비교해 7.5% 감소

○ 美, 올해 시리아 내 ISIS 겨냥 공습 성과 및 위협수준 발표

- 12.25 언론은 軍관계자를 인용, 올해 시리아내 ISIS 겨냥 공습 강화를 통해 수괴 2명 제거 등 성과를 올렸으나, 시리아·이라크 등지에 상당 규모의 잔당이 남아 있어 위협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

* 한편 일각에서는 시리아내 경제적 어려움 등이 ISIS 위협 증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군사 공격에만 치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

○ 브라질 경찰, 브라질리아 공항 폭탄 테러 미수범 체포

- 12.27 브라질 경찰은 24일 자국大選 결과에 불복, 브라질리아 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시도중 체포된 50대 남성 「소우사」가 「보우소나루」 現대통령의 ‘시민 무장 선동’에 고무되어 사건을 계획했다고 발표
 - * 「보우소나루」 現대통령은 선거 패배시 불복 시위나 쿠데타 촉구 등 지지자들 선동
 - ** 한편, 브라질 정부는 차기 대통령 취임식(’23.1.1)을 앞두고 경계수위를 강화

아·태평양

○ 아프간 탈레반, 대학에 무장 경비원 배치해 여성 출입통제

- 12.22 언론은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여성 대학교육 금지정책의 후속조치로 수도 카불에 있는 주요 대학 정문 앞에 무장 경비원을 배치해 여성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해 UN 등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
 - * 지난 20일 아프간 고등교육부는 공립·사립대학교에서 여성의 수업 참여 금지

○ 日검찰, ‘아베 총격범’ 살인죄 기소

- 12.24 언론은 日검찰이 「아베 신조」 前 총리를 총격 살해한 「야마가미 데쓰야」를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으며, 사건을 담당중인 나라 지방검찰청은 同人의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*이 있다고 보도
 - *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

○ 아프간 탈레반, 여성 비정부기구(NGO) 활동 금지

- 12.24 언론은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여성의 대학교육 금지에 이어 국내·외 비정부기구(NGO)에서의 활동도 금지했으며, 이에 UN과 EU 등 국제사회가 여성 억압 정책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보도
 - * UN은 성명을 통해 “이 명령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탈레반 지도부와 만날 방법을 모색할 것”이라며, 이는 여성의 기본권과 인도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

○ 국방과학연구소, 다수 드론 동시통신 ‘원통형 안테나’ 개발

- 12.27 국방과학연구소(ADD)는 다수의 드론과 동시 통신이 가능한 ‘다중빔 능동위상배열 안테나’ 기술을 독자 개발, 초고속 공중 네트워크 통신망을 통해 軍통신·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
 - * 기존의 안테나는 1개의 무기체계만 연결 가능한 반면, ‘다중빔 안테나’의 경우 1개의 안테나로 4개의 무기체계와 동시 통신이 가능한 장점 보유

'86년 크리스마스 헤즈볼라의 이라크 항공기 납치·추락사고

- '86.12.25 이라크 항공 163편 보잉 737기(바그다드發 요르단 암만行)가 무장 괴한 4명에게 공중 납치되어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에 추락, 63명 사망(106명 탑승)
* 보안요원들이 납치범들과 20분간 총격전을 벌였으나 객실·조종석에서 수류탄이 터지며 추락



<사고 항공기>

- 사건 직후, 親이란 무장단체 '헤즈볼라'는 이번 사건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
- 사망한 테러범 중 한 명은 레바논 국적의 「리발 칼릴 잘룰」*로 밝혀졌으며, 駐프랑스 이라크 大使「모하메드 사디크」는 이란 정부가 이번 공격을 주도했다고 비난
* 同人의 여권 사진은 베이루트 이슬람사원에서 발견된 헤즈볼라 순교자 포스터와 일치
- UN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이번 공격을 “변명의 여지도 정당성도 없는 비열한 테러 행위”라고 규정하며 비난
- 한편,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자국의 이번 사건에 대한 개입을 부인하며 “우리는 무고한 승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비난한다”고 발표

< 헤즈볼라(Hezbollah) >

- (결성) '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계기로 시아파 이슬람 단체인 '이슬라믹 아말'과 '다와'당이 연합하여 결성
* 테러단체 지정 : 美('97.10), 英('01.3), 캐나다('02.12)
- (핵심인물) 하산 나스랄라(사무총장), 나임 카셈
- (활동지역) 레바논 베이루트, 베카계곡 및 남부지역
- (활동수법) 국경지역 이스라엘軍 대상 게릴라戰 및 해외소재 유대교회당, 이스라엘 관광객 등 대상 폭탄테러 자행
- (주요테러) '83.10 美해병대 캠프에 폭탄차량 돌진(사망 241), '84.9 美대사관 공격(사망 20), '94.7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유대인센터 공격(사망 80)

